【자유교회 소식】

1. 2017년 자유교회 영적 목표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2.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교회개혁과 갱신에 더욱 힘쓰는 2017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3. 오늘 예배 설교는 캐나다 밴쿠버 명성교회 서주오 목사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4. 오늘 오후 4시부터 최원춘 장로 가정에서 9월 가정예배로 모입니다. 교회 카톡방에 참석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휴스톤 및 플로리다 태풍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다음 주에 마감합니다. 드려진 헌금만큼 선교부 재정에서 매칭 하여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330.00	
감사헌금:	$650.00	
주일헌금:	$20.00	
특별헌금:	$750.00	합계 $1,750.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교회개혁과 갱신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월드비전을 통해 우리교회가 돕는 어린 생명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옵소서.
- 우리교회가 물질로 돕는 단체들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일 예 배

오전11:00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신앙고백	주기도문	다 같 이
찬 송	형제의 모습 속에	다 같 이
기 도	Prayer	박재은 집사
찬 양	Special Event	자 원 자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경봉독	**창세기 13:5-15**	인 도 자
설 교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	서주오 목사
찬송과봉헌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 이
파송과축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최정아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한 어 예 배	오전 11시
주 일 교 회 학 교	오전 11시 (FFC와 연합)
한글학교& 찬양대	주일 오후 1:30
Youth Group	매수 오후 7시(FFC Youth)

2017년 9월 17일 제2017-38호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1702 Milton Way., Milton WA 98354
Tel (253) 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com
E-Mail: jayooch@gmail.com

신앙칼럼 (한국삼일교회 권대원 집사)

교회에서 인기 있는 간증은 대체로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잘나가는 신앙인'을 초청해서 자신이 '신앙'을 통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유명해졌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한다. 이런 종류의 간증에 감동받기 좋아하는 신앙인들의 마음에는 어쩌면 이런 심리가 있는지도 모른다.

신앙을 가지면 유명해지고,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어. 모든 간증을 그런 심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공하고 유명한 이들의 간증을 소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기독교인의 마음속에서 저런 '욕망'을 읽어 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신앙'이 추구하는 '희생과 이타적 사랑'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런 간증을 들으며 고생스럽게 살지 않아도 '편하고 그럴듯하게'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 안도한다. 다시 말해 신앙을 가졌다고 꼭 가난하게, 꼭 희생적으로, 꼭 정의롭게, 꼭 고통 받는 이웃을 챙기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 당신이 만약 비 신앙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통해 신의 존재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올까?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성공의 원인이자 목적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능력 있는 사람과 비록 잘난 것이 없고 부족해도 그늘진 고통의 길을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통해 더 신의 사랑과 존재를 느낄까?

아마도 내가 비 신앙인이라면 그늘지고 고통받는 곳에서 함께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희망을 볼 수 없는 곳에서 위로를 주고 서슬 퍼런 분노와 슬픔의 현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 주는 사람들을 통해 '신의 임재와 존재'를 느낄 것이다.

예수의 발자취를 좇는 것은 쉽지 않다. 그 길은 화려한 예배당, 압도적인 영광, 감동적인 간증, 수많은 추종자의 박수와는 거리가 먼 길이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고? 아마 쉽지 않을거야. 그 길은 고생스럽고 좁아터진 가시밭길이거든. 너에게 주어진 꽤나 무거운 십자가도 지고 따라와야 한단다.(마태복음7:14, 누가복음9:23)

저명한 이론 물리학자이자 성공회 사제이기도 한 존 폴킹혼은 신앙과 고통 가득한 세상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고통과 하나님의 관련성에 대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저 높은 곳에서 고통 가득한 이 '이상한' 세상을 내려다보며 동정하는 관찰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이 땅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 인간과 함께 고통당하는 참된 친구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지만 분명 제가 믿는 진리입니다. 이런 층위에서 고통의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종교적 신념의 가능성 또한 이 층위에 근거합니다.

고통 가득한 이 세상을 외면한 채 자기 교회의 안위와 번영만을 추구했던 한국교회는 도시마다 수많은 붉은 네온의 십자가로 채웠지만 사회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은 철저히 실패했다.

이제라도 돌이켜 세상의 그늘과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 걸어가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더 많이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그들의 헌신으로 이 세상은 더디지만 살 만한 곳이 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 계심과 세상을 향한 한없는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자유교회가 꿈꾸는 교회】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